

손흥민, 아시아인 최초 EPL 득점왕 '쾌거'

프로농구 '큰손' 전주 KCC FA 최대어 이승현·허용 영입

정규리그 23골로 살라와 공동 인정 공식전 24골 8도움 '역대급 시즌'

손흥민(30·토트넘)이 걷는 길이 역사가 되고 있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우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시티와의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종 37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멀티골로 토트넘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리그 22, 23호골에 성공한 손흥민은 같은 시간 울버햄튼전에서 2호골을 넣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이 됐다. EPL 역사상 첫 아시아 선수 득점왕이 탄생한 순간이다. EPL은 득점수가 같으면 출전 시간 등 다른 기록에 상관없이 공동 득점왕으로 인정한다.

EPL 출범 후 공동 득점왕은 이번 5번째다. 1997~1998시즌 디온 더블린(코번트리 시티), 크리스 서튼(블랙번), 마이클 오언(리버풀) 3명이 나란히 18골을 기록하며 첫 공동 득점왕이 됐다. 1998~1999시즌엔 오언과 함께 드와이트 요크(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리즈 유나이티드) 3명이 18골로 또 한 번 공동 1위에 올랐다.

이후 10년 넘게 단독 득점왕을 배출하다 2010~2021시즌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가 나란히 20골을 넣어 공동 득점왕을 올렸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2019시즌엔 살라와 사디오 마네(리버풀), 파예르 에메리 오버메양(아스널) 3명이 22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른 바 있다.

전반기에 다소 주춤했던 손흥민은 후반기에 엄청난 골 폭풍을 몰아치며 득점왕 판도를 뒤 흔들었다. 마지막 10경기에서 무려 12골을 집중시키며 살라를 맹추격했다.

특히나 페널티 없이 100% 필드골만으로 23골을 넣었다. 살라는 페널티킥이 5골이나 된다. EPL에서 페널티 없이 득점왕에 오른 건 디미타르 베르바토프(20골·2010~2011), 루이스 수아레스(31골·2013~2014시즌), 사디오 마네(22골·2018~2019시즌)에 이어 손흥민이 역대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이 됐다.

4번째다. 올 시즌 손흥민은 말 그대로 기록 제조기였다. 리그 23골로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득점을 갈아치웠다. 종전 최다 골이었던 지난 시즌 17골을 무려 6골이나 넘어섰다.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1골 1도움)를 포함한 공식전 45경기 24골(8도움)로 지난 시즌 세웠던 한 시즌 공식전 최다 득점(22골)도 다시 썼다. 2010년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 후 단일 시즌 리그에서 20골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설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세웠던 한국 선수 유럽축구리그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골(17골)도 넘어섰다.

동시에 이란 공격수 알리레자 자한비르시(페예노르트)가 보유한 아시아 선수 유럽 1부리그 한 시즌 최다 골(21골)도 깼다. 자한비르시는 AZ알크마르에서 뛰던 2017~2018시즌 21골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에 올랐었다.

더불어 단팍인 헤리 케인과 프랭크 램퍼트-디디에 드로그바(36골·첼시)를 넘어 EPL 역대 통산 최다 합작 골(41골) 신기록도 작성했다.

토트넘 역사에서도 손흥민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됐다.

2015년 토트넘 입단 후 325경기에서 131골을 넣어 통산 득점 10위에 올라 있다. 9위 앨런 길전(439경기 133골)과는 두 골 차이다.

7시즌 동안 EPL에서 232경기에 출전해 98골을 넣은 손흥민은 7골만 추가하면 통산 100골을 달성한다.

이제 손흥민에게 남은 목표는 우승컵이다. 프로 13년 차인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게 유일한 우승 경험이다. /뉴시스

"공식 입단식서 계약조건 공개 예정"

프로농구 전주 KCC가 자유계약(FA) 최대어 이승현(30)과 허용(29)을 영입했다.

KCC는 23일 FA를 통해 이승현과 허용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승현과 허용은 이번 시장에서 김선형(SK), 전성현(KGC인삼공사), 두경민(한국가스공사), 이정현(삼성)과 빅6로 평가받았다. 앞서 이정현은 KCC를 떠나 서울 삼성에 새롭게 둥지를 텄다.

이중 이승현을 최대어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지난 시즌 평균 13.5점 5.6리바운드 2.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승현은 197cm의 포워드로 힘과 슈팅 능력이 좋다. 리바운드와 수비 등 콧은임을 마다하지 않는다. 공헌도가 높아 여러 감독들이 제일 영입하고 싶은 선수로 꼽혔다.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고양 오리온(현 데이원자산운용)의 지명을 받았고, 2014~2015시즌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2015~2016시즌에는 오리온을 챔피언에 올리며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았다.

블라카 국가대표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용은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원주 동부(현 DB)의 지명을 받았다. 7시즌을 뛰었던 원주를 떠나게 됐다.

3년 연속 인기상을 수상한 허용은 지난 시즌 평균 16.7점 4.2어시스트 2.7리바운드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며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대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베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승현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함께 출전했다. 이승현과 허용은 용산고 선후배, 상무 동료로 가까운 사이다.

KCC는 베테랑 가드 이정현의 이적과 포워드 송교창의 군인대로 공백이 생겼지만 불을 영입하며 전력수수를 최소화했다.

KCC가 FA 시장의 '큰손'답게 단단히 버리고 있었던 인상이었다.

한편, 구단은 이날 두 선수의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KCC 관계자는 "24일 공식 입단 기자회견에서 두 선수의 계약을 공개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장애인 스포츠 진흥계획 수립·공동연구

우석대-전주시장애인체육회 협약

우석대학교 체육학과는 최근 전주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조현철 체육학과장(사진)과 이대성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봉사단 운영 ▲장애인 선수·지도자·심판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장애인 스포츠 진흥 계획 수립 및 공동연구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조현철 체육학과장은 "전주시장애인체육회와 상호 유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주시의 장애인체육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 학과의 인재양성과 전주시 장애인체육 사업 간 상호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대성 사무국장은 "수혜자 중심의 열린 체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 체육회는 전주시 모든 장애인의 재활 의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보다 발전된 협력 프로그램을 우석대학교 체육학과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월 설립된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은성 기자

학생 선수 경기력 향상 도모

도체육회, '학교운동부 지원' 참여학교 모집... 훈련기기 지원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에 참여 할 도내 초·중·고 학교운동부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운동부에 과학적 훈련용 기구를 지원해 훈련 여건을 개선, 우수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올림픽 종목 또는 기초종목 비인기 종목 위주이며 선정 될 경우 1개 운동부당 최대 200만원 상당의 각종 훈련 용품이 지원된다.

특히 체지방 측정기와 악력계, 전신 반응 측정기, 사이트 스텝 측정기 등 과학적 훈련 기구가 지원 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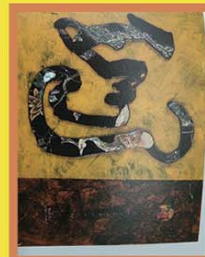
신준섭 사무처장은 "훈련용품의 질적·양적 향상을 통한 학교운동부의 훈련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은 전북체육회 영재복지과(063-250-8821)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